

2004 전국중소기업인대회 축하 메시지

전국중소기업인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전국의 중소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은 분들에게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스스로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堂堂히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대기업이라 해서 특별히 유리하거나 중소기업이라고 불리하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두 바퀴로서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양성 정책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개발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비탈진 경기장을 평평하게 해 주고 공정한 심판이 되어 줄 수 있을 뿐 실제 경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독창적인 기술개발에 매진하며 노사관계를 안정시켜 나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미래, 중소기업이 열어 갑시다'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러분이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힘껏 돕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번 행사가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출발하는 심기일전의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